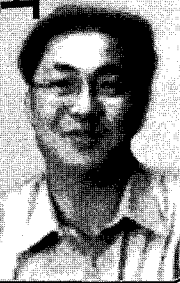


기고문

인라인 스케이트와 발명에 대하여



백건수(백건수특허법률사무소·변리사)
e-mail: patpen@patpen.co.kr
문의전화 (02)538-3951

주 5일제 근무가 정착 되어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레저산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전에 레저는 부유층의 소유물처럼 인식되었으나 요즘엔 인터넷 동호회나 레저 전문회사를 통하여 누구나 레저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필자도 근래에 할인매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구입했다. 필자의 집과 가까운 잠실 올림픽 공원엔 불야성을 이루며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스피드를 즐기고 있다.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일대는 바닥이 미끄러워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 좋아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큰 원을 그리면서 한쪽 방향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사용할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거리에서 탈 때에는 차량과 기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적시적소에서 멈출 수 있는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미 출원된 특허를 보면 여러 가지 브레이킹 발명이 있다. 또한 계단을 내려갈 때의 안전성 문제 등 기타 안전장치를 해결한 발명들이 있고, 잘 알다시피 신발 겸용 인라인 스케이트에 대한 출원도 많이 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아이템으로 향후 발명을 하면 좋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먼저 인라인을 즐기는 층의 문화를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라인을 즐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스피드' 때문이다. 겨울에는 스키가 인기라 항상 만원사례를 이룬다. 스키도 '스피드' 운동이다. 이렇게 최근 레저 문화는 스피드를 즐기는 것이고, 스피드를 만끽하는 내면에는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위험 또한 감수하겠다는 심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스피드를 즐기는 것과 안전장치는 서로 상반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류의 기술에는 스피드와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전성만을 내세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다. 그러나 스피드만을 내세우는 것은 아주 도전적인 발명이라고 보여지며 주로 기존 기술에서 개량한 기술이 될 것이다.

인라인에서 스피드를 내는 기본적 방법은 결국 지면과의 마찰문제, 휠의 재질, 공기 저항 등에 관한 것일 것이다. 인라인은 어차피 휠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높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높이가 더 올라가더라도 휠 상부에 소정의 장치를 내장하여 스피드를 내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전자 기술을 이용한 장치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 물론 전자 기술을 이용한 특허출원은 상당수 있다. 또한 발명가라면 인라인을 떠나서 스피드를 즐기는 문화에 따라 새로운 패턴과 새로운 기술에 따른 스피드 기구를 창조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젊은이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종래에는 여유있는 중년이 놀이 문화를 개발하면 젊은이들이 이를 보고 배워서 즐겼지만, 이제는 젊은이들이 개발한 놀이 문화를 어른들이 따라가는 반대 현상의 시대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에 맞추어 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정보 서비스 공여국 대열에...

우리나라가 특허정보 서비스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됐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의뢰한 칠레의 특허출원 10건에 대해 선행기술조사를 하고 결과를 지난달 23일 WIPO에 보내, WIPO 특허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 바뀌게 됐다고 밝혀졌다.

WIPO 특허정보서비스는 WIPO를 통해 조사 요청한 개도국의 출원 발명에 그 발명과 관련성이 깊은 최신 기술을 국제적으로 조사해 제공해주는 WIPO의 대(對)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지난 1975년부터 1994년까지 803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WIPO특허정보서비스를 받아왔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WIPO의 요청으로 특허정보서비스 공여국 반열에 오르고 이번에 선행기술조사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으로 공여국 지위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비스 제공은 특허청이 WIPO와 올해 제공하기로 합의한 50건 중 1차분이다.

신일본석유, 업무관련 발명특허자 1억엔 포상

직원의 업무와 관련, 취득한 발명특허에 최고 1억엔의 장려금을 지급기로 한 회사가 일본 산업계에 등장했다.

신일본석유는 지난달 15일 직원들이 취득한 모든 특허를 대상으로 연간 공헌도를 심사, 최고 1억엔을 지급하는 장려금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직원들의 업무상 발명 대가를 둘러싸고 회사와의 마찰이 급증세에 있는 일본 산업계에서 이처럼 거액의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한 회사는 신일본석유가 처음이다. 장려금은 특허가 유효한 기간 동안 지급되며 한번에 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특허로 벌어들이는 수입 등 실적을 감안해 지급하며, 공헌도는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특허 사용료 및 자사 제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참고로 결정한다.

신일본석유는 현재 400여건의 특허를 등록해 놓고 있으나 이중 70~80건에 수백만엔 정도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 기업들은 직원들의 업무상 발명 대가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성과지급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특허법을 개정, 직원의 업무상 발명에 대한 보수를 회사와 직원이 사전에 계약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Health News

만성피로증후군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으로 이겨내자!

만성피로증후군은 만성피로와는 확연히 다르다. 만성피로는 대부분 진단을 통해 원인을 알고 치료할 수 있지만 만성피로증후군은 아직까지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의학 관계자들은 스트레스나 환경오염 등으로 인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80만명 이상이 이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상당수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심한 피로증세에 시달리고 병원진찰 결과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에는 만성피로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밝혀진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완치법은 없다. 누적된 피로만큼 꾸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적된 피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필요하다. 커피나 초콜릿, 자극성 음식은 피하고 곡류, 야채, 지방, 비타민 등 에너지 균형이 고려된 음식을 섭취해야 하며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체 에너지 생성을 돕고 뇌기능 활성 물질이 골고루 들어있는 마늘, 보리, 브로콜리, 포도 등의 식품을 섭취하면 좋다.

현제까지 밝혀진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완치법은 없다. 누적된 피로만큼 꾸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적된 피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필요하다. 커피나 초콜릿, 자극성 음식은 피하고 곡류, 야채, 지방, 비타민 등 에너지 균형이 고려된 음식을 섭취해야 하며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인체 에너지 생성을 돕고 뇌기능 활성 물질이 골고루 들어있는 마늘, 보리, 브로콜리, 포도 등의 식품을 섭취하면 좋다.

피로 탈출 10계명

- ① 1주일에 3~4회, 적어도 3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 ② 술, 담배, 카페인 음료를 피한다.
- ③ 억지로라도 자주 웃는 습관을 기른다.
- ④ 바쁘더라도 음악감상, 독서 등 취미생활을 한다.
- ⑤ 평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한다.
- ⑥ 하루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 ⑦ 지방질, 당분의 섭취를 줄이고 탄수화물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한다.
- ⑧ 업무량을 조절해 충분한 휴식시간을 확보한다.
- ⑨ 이완운동, 호흡법 등 평소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혀둔다.
- ⑩ 습관성 약물의 사용을 피한다.

음식으로 본 만성피로증후군 퇴치법

- 인삼: 온몸이 무기력할 때 인삼을 하루 6g씩 달여 마시면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된다.
- 오미자: 오미자를 넣은 향이리에 찬물을 부어 땅에 묻고 오래 두었다 마시면 효과가 좋다. 기침과 천식을 가라앉히고 정력증강에 좋다.
- 오가피: 5~10g을 살짝 볶아 20분 정도 달여 마시면 원기회복에 도움이 된다.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효능이 있다.
- 사과: 식욕을 촉진시켜 영양을 보충하고 몸안에 쌓인 피로물질을 제거하며 장의 운동을 자극한다.